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9장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산상설교』 상권 제9장, 인쇄 118~131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7

> ❓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그냥 넘어가 주는 게 긍휼일까, 그리고 남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다는 말일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다섯째 복이 앞의 네 복, 특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에서 논리적으로 흘러나온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존재이냐가 먼저이며, 삶 전체가 그 존재를 드러낸다고 강조한다. 그다음 긍휼을 대충 넘어가 주는 '적당주의'나 타고난 성격으로 보는 오해를 걷어 낸다. 그리고 은혜와 비교해 긍휼을 '비참함을 보고 느끼는 측은함과 그것을 없애려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끝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행위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인다.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긍휼은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보여 주는 시금석이 된다고 결론짓는다.

📜 절별 정리

📜 1. 팔복의 순서 속에서 다섯째 복의 자리

로이드 존스는 이 복이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한 단계 더 나아가” 묘사한다고 말한다. 앞의 네 복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로 볼 때 생기는 필요와 그 필요에 대한 의식을 다루었다. 이제는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주님은 팔복을 아무렇게나 늘어놓지 않으셨고, 팔복에는 생각의 뚜렷한

성격 묘사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 그는 이 복이 우리 신앙고백을 깊이 파고드는 '시금석'이라고 말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씀에 찔려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낮아지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1. 팔복은 우연한 나열이 아니라 논리적 사슬이다
2. 긍휼은 앞의 모든 복, 특히 넷째 복의 결과다
3. 앞의 복은 하나님 앞의 나, 이 복은 이웃 앞의 나다
4. 팔복 전체가 신앙고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5. 찔림을 거부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

> **마태복음 5:7**
> 이 설교의 본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진 복
>
>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 **마태복음 5:6**
> 바로 앞의 복. 긍휼이 흘러나오는 직접적 출발점
>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 **마태복음 5:3**
> 낮아짐을 받아들이는 '심령의 가난'이 모든 복의 바탕임을 상기
>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2. 존재가 행위보다 먼저다

로이드 존스는 복음이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자세, 곧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더 큰 무게를 둔다고 말한다. 산상설교도 먼저 성격과 기질을 그리고 그다음에 행동을 말한다. 그는 신약을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애쓰라”는 가르침으로 읽는 생각을 분명히 부정한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실천해야 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를 든다. 신앙은 삶의 표면이 아니라 인격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신약이 중생, 새 창조, 새 성품을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반응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한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행동을 꽤 억누를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여러 모양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만다.

1.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2. 기독교가 나를 통제하지, 내가 기독교를 통제하지 않는다
3. 신앙은 표면이 아니라 인격 중심에서 일어난다
4. 중생·새 창조가 생각과 행동 전체를 다스린다
5. 일상의 반응이 내가 누구인지 선언한다

> **갈라디아서 2:20**
>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존재가 행위를 이끈다는 핵심 근거
>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 **마태복음 5:7**
> 긍휼도 '행동 지침'이기 전에 '성품 묘사'임
>
>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행동할 수 있기에 앞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 3. 긍휼은 '적당주의'도, 타고난 성격도 아니다

정의를 믿지 않는 시대에 이 오해는 특히 위험하다. 사람은 절대 자유를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당시를 지배했고, 그런 시대는 “무슨 상관이야, 계속해”라며 잘못에 미소 짓는 것을 긍휼로 여긴다. 그는 이 오해를 두 이유로 반박한다. 첫째, 팔복은 타고난 기질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읽으면 느긋하게 태어난 사람이 유리해져 불공평해진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유리한 기질은 없다. 둘째, 더 큰 이유는 '긍휼'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이는 말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면서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다. 그러니 진리와 율법을 희생시켜야 성립하는 긍휼은 참 긍휼이 아니다.

1. 긍휼은 잘못에 눈감는 관대함이 아니다
2. 자유방임 시대의 착한 척과 혼동하지 말라
3. 타고난 순한 성격은 팔복과 무관하다
4.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말이다
5. 하나님의 긍휼은 거룩·공의와 함께 간다

> **로마서 3:23**
>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유리한 기질은 없다
>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로마서 3:19**
> 모든 입이 막힌다. 누구도 성품으로 변명할 수 없다
>
>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 4. 긍휼의 정의: 측은함과 행동이 합쳐진 것

로이드 존스는 긍휼을 은혜와 비교해 풀어 간다.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를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지만, 목회서신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쓴다. 그는 이

결과를 본다. 그래서 긍휼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그 고통을 없애려는 소원이 합쳐진 것이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보며 “드디어 기회다, 법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복수심은 긍휼과 정반대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다른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지나갔다. 측은함을 느꼈을지는 몰라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사마리아인은 다가가 상처를 싸매고 숙소를 마련해 주었고, 이것이 긍휼이다. 긍휼의 으뜸가는 실례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법을 어겼는데도 비참한 상태를 보시고 아들을 보내 해결하셨다. 그래서 속죄가 반드시 필요했다. 공의와 긍휼은 모순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조화를 이룬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조상들에게 약속된 긍휼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고 감사했다.

1. 은혜는 죄를, 긍휼은 죄의 비참함을 본다
2. 긍휼은 측은함과 해결하려는 행동의 합이다
3. 복수심은 긍휼의 정반대다
4. 느끼기만 하고 지나가면 긍휼이 아니다
5. 최고의 긍휼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다

디모데전서 1:2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와 긍휼을 구분하는 출발점

>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1:2

같은 인사말. 목회서신의 특징을 확인

>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10:30~37

선한 사마리아인. 측은함이 행동으로 이어진 긍휼의 실례

>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

누가복음 1:72

사가랴의 찬가. 조상에게 약속된 긍휼이 이루어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누가복음 1:78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메시아가 오심. 긍휼과 공의의 조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긍휼은 측은감과 행동이 합쳐진 것입니다.”

📜 5.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은 거래 조건인가

로이드 존스는 이 복만큼 자주 오해받은 팔복은 없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을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내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다”로 읽는다. 같은 식으로 읽히는 본문이 둘 더 있다. 하나는 주기도문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이다.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다. 거액을 탕감받은 종이 작은 빚을 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고, 주인은 탕감을 취소한다. 로이드 존스는 이 해석이 두 가지 이유로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다. 첫째, 우리 용서의 정도로 엄격히 심판받는다면 아무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원수 되었을 때 화목되었다” 같은 말씀이 모두 거짓이 되어 버린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고, 한 구절을 다른 구절과 모순되게 풀면 안 된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해석은 단순해진다. 용서는 참된 회개에 주어지고, 참된 회개란 내가 처벌밖에 받을 자격이 없으며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온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1.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조건론은 오해다
2. 그 기준이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간다
3. 조건론은 은혜 교리 전체를 무너뜨린다
4. 성경은 성경으로, 교리끼리 일치하게 읽는다
5. 용서는 은혜만 의지하는 참 회개에 주어진다

> **마태복음 6:12**
> 주기도문. 조건론으로 오해되는 유사 본문
>
>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마태복음 18:23~35**
> 무자비한 종 비유. 역시 조건론으로 오해되는 본문
>
>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

> **로마서 5:8**
>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 조건론이 지워 버릴 은혜의 증거
>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 되었을 때 화목됨. 은혜가 우리 행위보다 앞섬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19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심. 주도권은 하나님께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디모데후서 2:15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 6. 팔복의 사슬을 따라가면 긍휼에 이른다

로이드 존스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 반드시 남을 용서하게 되는 이유를 팔복의 연결로 보여 준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이렇게 풀어 쓴다. 첫째, 나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둘째, 성령이 내 마음의 검은 것을 보여 주셔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애통한다. 셋째, 나를 정말로 본 이상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 가장 큰 원수도 내 가장 악한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온유하다. 넷째,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그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는 선물로 받았다. 이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과 같이 볼 수 없다. 그는 그들을 싫어할 대상이 아니라 죄와 사탄에게 속고 붙잡힌 희생물로 보고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그들과 같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죄인과 죄를 구별한다. 최고의 실례는 십자가의 주님이 자기를 못 박는

기도를, 그들이 죄에 눈멀어 하는 일을 모른다고 본 긍휼의 기도로 풀이한다. 우리를 헐뜯는 사람의 성난 얼굴을 볼 때도 그들의 영이 잘못되어 있음을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긍휼에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에게는 교만도, 변명도, 권리 주장도 설 자리가 없다.

1. 가난·애통·온유·주림이 긍휼로 이어진다
2. 내 최악을 본 사람은 남의 모욕에 무너지지 않는다
3. 남을 죄와 사탄의 희생물로 보게 된다
4. 죄인과 그의 죄를 구별한다
5. 십자가의 주님과 스데반이 본보기다

> **로마서 7:24**
>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애통하는 사람의 고백
>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 **누가복음 23:34**
>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긍휼의 최고 실례
>
>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 **사도행전 7:60**
> 스데반의 기도.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할 긍휼
>
>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 7.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한다 — 그리고 그날의 긍휼

로이드 존스는 긍휼한 사람이 긍휼한 까닭은 이미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않고 있음을 알게 되면 기도에 확신이 없고 자신을 멸시하게 된다. 다윗의 말처럼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무자비한 종 비유도 이렇게 읽어야 한다.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종은 용서가 무엇인지, 주인과 자기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른 사람이고, 따라서 실제로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 속에 용서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용서받았을 리가 없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엄숙하고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일이라고 말한다. 누구도 타고나기를 용서의 영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 영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악행에도 무엇을 해 주셨는지 보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게 한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자신을 찾아온 오네시보로를 위해 "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빌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몸으로 행한 일을 직고할 때 긍휼이 필요하다. 긍휼한 사람은 그날에 긍휼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긍휼하지 못하다면 설명은 하나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다.

1. 긍휼한 이유는 이미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다
2.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에 확신이 없다
3. 용서의 영이 없다면 용서받지 못한 것이다
4. 용서의 영은 타고나지 않고 은혜로만 생긴다
5. 심판대 앞에서 긍휼한 자가 긍휼을 얻는다

> **시편 66:18**
>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는 기도의 무력함
>
>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 **마태복음 18:35**
>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그렇게 하신다. 용서 없음은 용서받지 못한 증거
>
>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 **디모데후서 1:16~18**
> 오네시보로에게 "그날에" 긍휼을 빎. 마지막 날의 긍휼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18](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10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섬. 그날 우리 모두에게 긍휼이 필요함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나도 용서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팔복

마태복음 5:3~12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여덟 가지 '복 있는 사람'으로 묘사한 말씀이다.

긍휼

죄 때문에 비참해진 사람을 보고 느끼는 측은함과, 그 고통을 없애려는 행동이 합쳐진 것이다.

은혜

죄를 지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다. 이 장에서는 '죄 전체'를 보는 말로 긍휼과 구별된다.

생래적 기질

태어날 때부터 지닌 성격이다. 로이드 존스는 팔복을 이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중생(거듭남)
성령이 사람 속에 새 생명과 새 성품을 주셔서 인격 중심부터 새롭게 하시는 일이다.

회개
내가 처벌밖에 받을 자격이 없고,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온다고 인정하며 돌아서는 것이다.

속죄
그리스도가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신 일이다.

시금석
금의 진위를 가리는 돌이라는 뜻이다. 신앙이 진짜인지 드러내는 시험 기준을 가리킨다.

- **점검 질문**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 긍휼은 앞의 네 복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사람이 이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결과다.
- 긍휼은 잘못에 눈감는 관용도 타고난 성격도 아니다. 비참함을 보는 측은함과 그것을 없애려는 행동이며, 공의와 함께 간다.
-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일이 긍휼의 최고 실례이고, 십자가에서 긍휼과 공의가 조화를 이룬다.
-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은 행위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를 말한다.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한다.
- 그래서 내가 긍휼한지 여부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보여 주는 엄숙한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